

원 저

## 청소년의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고병수, 심우수, 강윤주\*, 심재용, 이혜리, 안동현\*\*

영동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교실\*\*

### 요 약

**연구배경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 (FACES III)를 사용할 경우 발견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6년 5-6월에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8개교(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및 경기도 양평지역 중고등학교 2개교(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중인 학생 2430명(남자: 1190명, 여자: 1240명)을 대상으로 가족 적응력·결속력 평가 척도(FACES III) 및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유무, 가족의 형태(대가족/소가족), 동거 가족의 수, 형제자매 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결과 :** 적응력 점수의 경우 양평 지역보다 서울 지역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신을 제외한 형제자매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 더 높았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 더 높았다. 결속력 점수의 경우 양평 지역보다 서울 지역에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동거 가족수가 5인 이상인 경우보다 그 미만인 경우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을 제외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더 높았고,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더 높았다.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학력 수준, 성별, 지역, 어머니의 직업 유무, 연령대 등이 적응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모의 학력 수준, 연령대, 형제자매 수 등이 결속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결론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FACES III)를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 단독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특히 그 기준점 설정이나 용어사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별적인 상담 및 진료장면에 적용될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여타 검사도구들과 병용하거나 각 하부항목에 대해 고려하는 등 보다 개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의학회지 2000 ; 21 : 615~624)

중심단어 : 청소년,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FACES III), 가족기능평가

### 서 론

청소년기는 소아기와 성인기의 이행기로서 2차 성징의 출현과 신장의 급성장을 포함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과 사고기능의 발달과 정신적, 사회

적인 성숙을 이루는 시기를 말한다<sup>1)</sup>.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긴 과도기 동안에 청소년들은 정서적, 정신적 발달 과정을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sup>2)</sup>,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유년기의 평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

는 반면에 현실을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독립심이 있으며,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 현실과 이상의 심한 불균형, 성인 역할의 일반적인 금지와 이에 대한 강한 호기심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가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 성원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족과의 상호관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년은 모든 생활면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심한 정서 변화와 역할 혼동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게 된다<sup>3)</sup>.

이처럼 가족과 청소년기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기능을 평가하여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가계도(family genogram), 가족 원(family circle),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등이 있으나<sup>4)</sup>, Olson과 그의 동료들<sup>5,6)</sup>이 서큘럼플렉스모형(Circumplex model)을 고안하여 결속력과 적응력으로 나눈 가족기능의 2개 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매개로 하여 가족기능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서큘럼플렉스모형에서는 가족유형(family type)을 조화형(balanced), 중간유형(mid-range), 극단적 유형(extreme)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고, 다시 결속력과 적응력의 정도에 따라 열여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Olson 등<sup>7,8)</sup>은 이를 토대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1981년, 198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50문항, 30문항, 그리고 1985년 20문항으로 간이화한 가족적응력·결속력평가척도(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이하 FACES III)를 개발하여, 이후 가족치료에서 임상적 진단과 계획을 세우는데 그 유용성을 높여 왔다.

가족결속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맺는 정서적 유대와 가족체계 내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별적 자율성의 정도'를 말하며 이들은 결집력의 정도에 따라 낮은 순서부터 이탈된(disengaged) 가족, 분리된(separated) 가족, 연결된(connected) 가족,

밀착된(ermeshed)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 가족이 결집력의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은 분리된 가족과 연결된 가족을 말하며, 이탈되거나 밀착된 가족은 극단적 가족이라고 분류하게 된다. 가족 적응력이란 '그 가족 구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또는 발달과정상 있게 되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 가족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적응력에 따라 정도가 낮은 순서부터 경직된(rigid) 가족, 구조화된(structured) 가족, 유연한(flexible) 가족, 혼란한(chaotic) 가족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구조화된 가족과 유연한 가족을 균형을 이룬 가족이라 하게 되고 경직된 가족, 혼란한 가족을 극단적인 가족이라 분류하게 된다. 결속력과 적응력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나누어진 각각의 4가지 범주의 조합은 모두 16가지의 가족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나온 16가지의 가족 형태 중에서 두 가지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이면 '조화형(balanced) 가족', 한 가지 차원만이 균형을 이룬 형태이면 '중간 유형(mid-range) 가족',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극단적 유형(extreme) 가족'이라 하게 되어 세 가지 가족 유형군이 설정되는 것이다<sup>9,10,11)</sup>.

FACES III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sup>12)</sup>, 우리나라에서는 FACES III의 번안 작업이 이루어진<sup>9)</sup> 이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sup>13)</sup> 여러 가족 상황이나 질병군에서 이용되어 왔다. 저자들은 가족기능을 평가할 때 널리 사용되는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FACES III)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발견되는 가족 적응력, 결속력 점수 분포와 특성, 그리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하부항목 점수 분포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연구를 하였다.

## 방 법

### 1. 연구 대상

1996년 5-6월에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8개교(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및 경기도 양평지역 중고등학교 2개교(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30명(남자: 1190명, 여자: 1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Table 1.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tudy subjects.

	Seoul	Yangpyung	X <sup>2</sup> -value	Total
<b>Family type</b>				
Nuclear	1033 (92.6)	990 (77.3)	105.74*	2023 (84.4)
Extended	83 ( 7.4)	291 (22.7)		374 (15.6)
<b>No. of siblings</b>				
No	63 ( 5.8)	47 ( 3.7)	154.42*	110 ( 4.7)
One	676 (62.1)	486 (38.6)		1162 (49.5)
Two or more	349 (32.1)	727 (57.7)		1076 (45.8)
<b>No. of family members</b>				
Under 5	743 (66.5)	633 (51.0)	59.51*	1401 (58.2)
5 or more	374 (33.5)	633 (49.0)		1007 (41.8)
<b>Occupational status</b>				
<b>Father</b>				
Employee	1027 (90.9)	1121 (86.2)	12.77*	2148 (88.4)
Unemployee	103 ( 9.1)	179 (13.8)		282 (11.6)
<b>Mother</b>				
Employee	317 (28.1)	500 (38.5)	29.35*	817 (33.6)
Unemployee	813 (72.0)	800 (61.5)		1613 (66.4)
<b>Educational level</b>				
<b>Father</b>				
<High school	61 ( 5.9)	530 (47.6)	705.52*	591 (27.6)
High school	400 (38.8)	482 (43.3)		882 (41.1)
High school <	570 (55.3)	101 ( 9.1)		671 (31.3)
<b>Mother</b>				
<High school	137 (13.1)	824 (69.2)	796.23*	961 (42.9)
High school	597 (57.0)	338 (28.4)		935 (41.8)
High school <	314 (30.0)	28 ( 2.4)		342 (15.3)

All missings are deleted,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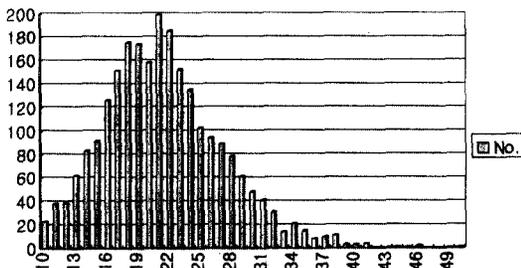


Figure 1-1. Distribution of adaptability sc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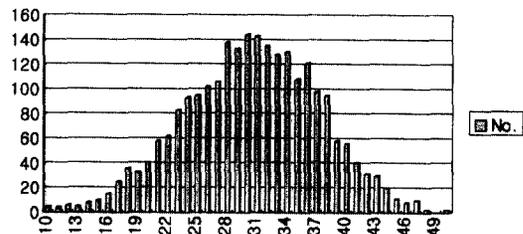


Figure 1-2. Distribution of cohesibility scores.

고병수 등: 청소년의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Table 2-1. Mean values of the adaptability and cohesibility scores. (mean ± SD)

	Adaptability scores			Cohesibility scores		
	Seoul	Yangpyung	Total	Seoul	Yangpyung	Total
<b>Males</b>						
Middle school	22.1±5.5	20.3±5.4	21.2±5.5	32.7±6.7	30.3±6.2	31.4±6.5
High school	21.4±5.8	20.6±5.5	21.0±5.6	29.9±6.8	29.4±6.4	29.6±6.6
Total	21.8±5.6	20.5±5.4	21.1±5.6	31.2±6.9	29.8±6.3	30.4±6.6
<b>Females</b>						
Middle school	23.3±6.0	20.9±5.6	22.1±5.9	31.1±6.9	30.1±6.5	30.6±6.7
High school	21.9±6.3	21.4±5.5	21.6±5.9	29.9±7.7	30.5±6.7	30.2±7.2
Total	22.6±6.2	21.2±5.5	21.8±5.9	30.5±7.4	30.3±6.6	30.4±7.0
<b>Total</b>						
Middle school	22.7±5.8	20.6±5.5	21.6±5.7	31.8±6.9	30.2±6.3	31.0±6.6
High school	21.6±6.0	21.0±5.5	21.3±5.7	29.9±7.3	29.9±6.6	29.9±6.9
Total	22.2±5.9	20.8±5.5	21.5±5.7	30.8±7.1	30.0±6.5	30.4±6.8

Table 2-2. Percentile values of the adaptability and cohesibility scores.

Percentiles	Seoul	Yangpyung	Total
<b>Adaptability</b>			
5th.	13.0	13.0	13.0
10th	15.0	14.0	14.0
25th	18.0	17.0	17.0
50th	22.0	20.0	21.0
75th	26.0	24.0	25.0
90th	30.0	28.0	29.0
95th	33.0	30.0	32.0
<b>Cohesibility</b>			
5th.	19.0	19.0	19.0
10th	21.5	21.0	21.0
25th	26.0	26.0	26.0
50th	31.0	30.0	31.0
75th	36.0	35.0	35.0
90th	40.0	38.0	39.0
95th	42.0	40.0	41.0

2 연구에 사용된 변수

1) 가족 적응력, 결속력 점수

Olson 등이 고안한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 (FACES III)를 한국어로 번안된 것<sup>9)</sup>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적응력 10문항, 결속력 10문항)은 각각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적응력, 결속력 점수와 각 하부 항목의 점수를 알아 보았다.

2)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가족환경 변수

지역, 성, 학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유무, 가족의 형태(대가족/소가족), 동거 가족의 수, 형제자매 수 등을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각 변수에 따라 적응력, 결속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2-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 적응력·결속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단계

Table 3-1. Factors related with adaptability and cohesibility scores (univariate model).

	Adaptability scores Mean $\pm$ SD	t-value or F-value	Cohesibility scores Mean $\pm$ SD	t-value or F-value
District				
Seoul	22.2 $\pm$ 5.9	5.77**	30.8 $\pm$ 7.1	2.83**
Yangpyung	20.8 $\pm$ 5.5		30.0 $\pm$ 6.5	
Gender				
Males	21.1 $\pm$ 5.6	3.29**	30.4 $\pm$ 6.6	0.20
Females	21.8 $\pm$ 5.9		30.4 $\pm$ 7.0	
School grade				
Middle school	21.6 $\pm$ 5.7	1.49	31.0 $\pm$ 6.6	3.88**
High school	21.3 $\pm$ 5.7		29.9 $\pm$ 6.9	
Family type				
Nuclear	21.6 $\pm$ 5.8	2.53*	30.5 $\pm$ 7.7	1.37
Extended	20.8 $\pm$ 5.6		31.1 $\pm$ 6.7	
No. of siblings				
No	22.0 $\pm$ 6.4	5.20**	31.6 $\pm$ 7.7	13.91**
One	21.8 $\pm$ 5.9	(2-3)	31.1 $\pm$ 6.7	(2-3) (배고)
Two or more	21.1 $\pm$ 5.5		29.7 $\pm$ 6.7	
No. of family members				
under 5	21.6 $\pm$ 5.9	1.62	30.7 $\pm$ 7.0	2.08*
5 or more	21.2 $\pm$ 5.6		30.1 $\pm$ 6.6	
Occupational status				
Father				
Employee	21.5 $\pm$ 5.8	0.40	30.5 $\pm$ 6.8	1.79
Unemployee	21.3 $\pm$ 5.4		29.7 $\pm$ 7.1	
Mother				
Employee	21.7 $\pm$ 5.8	1.65	30.2 $\pm$ 6.9	0.92
Unemployee	21.3 $\pm$ 5.7		30.5 $\pm$ 6.7	
Education level				
Father				
<High school	20.4 $\pm$ 5.1	25.58**	30.0 $\pm$ 6.1	14.37**
High school	21.3 $\pm$ 6.1	(1-2-3)	30.1 $\pm$ 6.8	(1-2) (배고)
High school <	22.7 $\pm$ 5.8		31.7 $\pm$ 7.1	
Mother				
<High school	20.6 $\pm$ 5.4	23.91**	29.9 $\pm$ 6.4	19.78**
High school	22.0 $\pm$ 5.9	(1-2-3)	30.6 $\pm$ 7.0	(1-2) (배고)
High school <	22.8 $\pm$ 6.1		32.5 $\pm$ 7.0	

All missings are deleted, \*P &lt; 0.05, \*\*P &lt; 0.01

Table 3-2.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with adaptability and cohesibility scores (stepwise regression model).

Variables	Adaptability scores			
	$\beta$	Partial R <sup>2</sup>	Model R <sup>2</sup>	F-valu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sup>☞</sup>	1.0375	0.0190	0.0190	44.80**
Gender <sup>§</sup>	0.7835	0.0041	0.0232	9.72**
Area <sup>‡</sup>	-0.4181	0.0032	0.0264	7.62**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sup>#</sup>	0.6656	0.0031	0.0295	7.40**
Grade <sup>  </sup>	-0.1515	0.0021	0.0316	5.1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sup>*</sup>	0.8149	0.0016	0.332	3.7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sup>☞</sup>	0.9679	0.0014	0.0346	3.40

Variable	Cohesibility scores			
	$\beta$	Partial R <sup>2</sup>	Model R <sup>2</sup>	F-valu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sup>☞</sup>	0.8935	0.0161	0.0161	37.65**
Grade <sup>  </sup>	-0.3161	0.0084	0.0245	19.90**
No. of siblings <sup>*</sup>	-0.9037	0.0053	0.0297	12.5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sup>☞</sup>	1.5972	0.0022	0.0319	5.17*

† : P<0.1, \* : P<0.05, \*\* : P<0.01  
 ‡ : 0=Seoul, 1=Yangpyung  
 § : 0= male, 1=female  
 || : 0=middle school age, 1=high school age  
 ¶ : 0=0, 1=2 or more  
 # : 0=unemployee, 1=employee  
 \* : 0=under high school, 1=high school  
 ☞ : 0=under high school, 1=over high school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가족환경

서울 지역은 양평 지역에 비해 핵가족의 가족유형이 더 많았고, 형제자매 수 및 동거가족의 수도 더 적었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은 더 높았다(P<0.01). 또한 부모의 취직여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은 양평 지역에 비해 아버지의 취업률은 더 높았고, 어머니의 취업률은 더 낮았다(P<0.01) (Table 1).

2. 대상자들의 가족 적응력·결속력 점수 분포

대상자들의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 분포는 Figure 1-1, 1-2와 같았다. 전반적으로 적응력, 결

속력 점수 모두에서 양평 지역보다 서울 지역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Table 2-1), 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의 각 백분위수도 서울 지역에서 양평 지역에서도 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2-2).

3. 가족 적응력·결속력 점수와 관련된 요인

적응력 점수의 경우 양평 지역보다 서울 지역에서 (P<0.01), 남자보다 여자에서 (P<0.01), 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P<0.05), 자신을 제외한 형제자매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에 (P<0.01),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 (P<0.01)에 더 높았다 (Table 3-1).

결속력 점수의 경우 양평 지역보다 서울 지역에서 (P<0.01),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P<0.01), 동거 가족수가 5인 이상인 경우보다 그 미만인 경우에서 (P

Table 4. Mean values of each adaptability and cohesibility scores. Unit : Mean  $\pm$  SD

Items	Adaptability scores	Items	Cohesibility scores
High scores		High scores	
1. Children have a say in their discipline	2.8 $\pm$ 1.2	1. Family togetherness is very important	40 $\pm$ 1.3
2. In solving problems, the children's suggestions are followed	2.6 $\pm$ 1.1	2. Family members feel very close to each other	3.6 $\pm$ 1.3
3. Our family changes its way of handling tasks	2.6 $\pm$ 1.0	3. Family members feel closer to other family members than to people outside the family	3.4 $\pm$ 1.4
Low scores		Low scores	
1. It is hard to tell who does which household chores	1.5 $\pm$ 0.9	1. We like to do things with just our immediate family	1.9 $\pm$ 1.1
2. Parent(s) and children discuss punishment together	1.6 $\pm$ 1.0	2. Family members consult other family members on their decisions	2.1 $\pm$ 1.3
3. It is hard to identify the leader(s) in our family.	1.7 $\pm$ 1.1	3. We can easily think of things to do together as a family	2.2 $\pm$ 1.2

<0.05), 자신을 제외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 $P < 0.01$ ),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 $P < 0.01$ ) 더 높았다 (Table 3-1).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학력 수준, 성별, 지역, 어머니의 직업 유무, 청소년의 연령대 등이 적응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학력 수준, 청소년의 연령대, 형제자매 수 등이 결속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2).

#### 4. 가족 적응력·결속력 각 하부항목의 점수 분포

적응력의 경우, 자녀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가족내 역할이나 지도자가 혼돈된다는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속력의 경우, 가족 구성원끼리 친근한 느낌을 갖는다는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함께하는 구체적 활동에 대한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4).

## 고 찰

이번 논문은 서울과 경기도 양평 지역의 중고등학교 생활 대상으로 FACES III를 적용한 연구결과, 가족 적응력 점수의 경우 평균 21.5 $\pm$ 5.7이고 가족 결속력 점수는 30.4 $\pm$ 6.8으로 나왔는데 Olson이 1985년 미국의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4)</sup>에서 가족 적응력 평균 점수가 24.1 $\pm$ 4.7, 가족 결속력 평균 점수가 39.8 $\pm$ 5.4로 나온 결과와 FACES III를 이용한 다른 국내 연구<sup>15)</sup>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차이라고 사료되며 국내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양희의 연구에서 남자 고등

학생의 가족 적응력 평균  $21.2 \pm 5.1$ , 가족 결속력 평균  $31.6 \pm 6.3$ 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적응력 점수에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요소중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적응력 점수가 더 높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주연<sup>10)</sup>의 연구에서 가족 적응력이 부모의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며,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버지 학력은 의미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상인 어머니가 고졸 미만인 어머니보다 적응력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안양희<sup>9)</sup>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속력 점수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에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더 높았는데 김주연<sup>10)</sup>의 연구를 보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결속력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Friedman, Utada, Morrissey<sup>11)</sup>는 청소년에서 적응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를 사회경제상태, 교육배경, 종교 등으로 보고하였고, 안양희도 같은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학력 수준, 성별, 지역, 어머니의 직업 유무, 청소년의 연령대 등이 적응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리고 부모의 학력 수준, 청소년의 연령대, 형제자매 수 등이 결속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질문 항목별 특징을 보면 가족 성원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적응력의 경우 자녀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가족내 역할이나 지도자가 혼돈된다는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과거 권위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가족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성원간의 유대감 정도를 나타내는 결속력의 질문들중 가족 구성원끼리 친근한 느낌을 갖는다는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함께하는 구체적 활동에 대한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특징들을 볼 수 있었는데 청소년이 느끼기에 가족내 친밀감은 크다고 느끼지만 가족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서적 결속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Olson 등<sup>12)</sup>의 기준점을 적용할 경우, 대상 청소년이 응답한 가족유형으로는 도시와 농촌 공히 경제적이고 이탈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8.0%), 혼돈되고 이탈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0.9%),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혼돈되고 이탈된' 가족 유형은 안양희의 연구 결과<sup>9)</sup>와 일치한 반면, 3가지 가족 유형으로 대분할 경우 조화된 유형이 5.6%, 중간유형이 21.6%, 극단형이 52.8%로서 극단형이 과반수를 차지한 본 연구 결과는 '구조화되고 연결된' 유형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조화형이 대부분을 차지한 김주연<sup>10)</sup>과 안양희<sup>9)</sup>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저자 등의 연구가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최근 널리 사용되어지는 FACES III에서는 현재 가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진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데는 이견이 없겠으나 몇가지 제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가족 결속력, 적응력 평가에서 청소년 단독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특히 그 기준점 설정이나 용어사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를 따로 평가하고, 부모의 상태와 자녀의 상태 또한 각각 따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면 좀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개별적인 상담 및 진료장면에 적용될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보단 여타 검사도구들과 병용하거나 각 하부항목에 대해 고려하는 등 보다 개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Robert L. Johnson. Adolescent Medicine: Adolescent Growth and Development. 2nd edition. Norwalk, Connecticut/San Mateo, California: APPLETON & LANGE; 1989. (9-15).
2. 윤진. 청년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88. (177-200).
3. 김소야자.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수문사; 1987.

4. 박기흠. 가정의학:가족의 구조와 기능. 서울:계축문화사;1997. (42-50).
5. David H. Olson, CS Russell, DH Sprenkle. Circumplex Model IV: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983;22:69-83.
6.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수문사;1991. (90-91).
7. 배종면, 김영주. 가족구성원 1인의 FACES III 응답 이용시 설문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가정의학회지 1994;15(6):312-321.
8. David H. Olson, J. Portner, Y. Lavee.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mily Inventories 1985:41.
9. 안양희.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1988.
10. 이장희, 이규래, 임종한.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FACES III)를 사용한 한국 가족기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 1992;1(1):20-31.
11. 심혜숙, 신영규.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분화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94;2:89-103.
12. David H. Olson. Circumplex Model VII: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1986;25:337-51.
13.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박기우, 이해리, 윤방부.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FACES III)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 1990;11(10):8-17.
14. Ingrid Dundas.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II in a Norwegian Sample. Family Process 1994;33:191-202.
15. 박정용, 허봉렬, 윤영호, 조비룡, 차재호, 최성재 등. 한국가족의 위기분석과 기능평가. 가정의학회지 1999;20(3):252-58.
16. 김주연.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996.
17. Alfred S. Friedman, Arlene Utada, Margaret R. Morrissey.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ess 1987;26:131-48.
18. 이상화.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불안 및 가족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 회지 1991;12:1-10.

## 입상 퀴즈 정답

21권 4호(일차의료에서의 금연전략)

1. 다
2. 나
3. 다
4. 나
5. 다

— Abstract —

FACES III in the Korean adolescents

Ko Byung-Su, Shim Woo-Su, Kang Yun-Ju\*, Shim Jae-Yong, Lee Hye-Ree, Ahn Dong-Hyu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 Dong Severance Hospital, Seoul School Health Center\*

Department of Pa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Background :** This study was intended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hen FACES III are used as tools to evaluate family function of adolescents.

**Methods :** From May to June 1996,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 FACES III were conducted on 2,430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males:1,190, females:1,240) in Seoul and Yangpyung, Kyunggi-Do. There were eight schools (four middle schools, four high schools) in Seoul and two schools (one middle school, one high school) in Yangpyung, Kyunggi-Do in this study. Also,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occupational status of parents, family types (extended/nuclear), number of family member and numbers of siblings were assessed.

**Results :** The mean values of adapt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eoul students, in females, and in nuclear families. The mean values were higher in single sibling than two or more and in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 The mean values of cohe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eoul students,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in family members of 5 and under. The mean values were higher in those without a sibling and in those with above college education.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gender, area,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and grade were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the mean values of adaptability and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grade and numbers of sibling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mean values of cohesion.

**Conclusions :** We consider that there are problems in deciding the cut-off point and in the questionnaires of survey when the FACES III is used as a tool for evaluating family function of adolescents. Trials of combining other tools of family function or consideration of lower concepts are needed in other to be applicable to the individual conversation and the clinical surroundings. (J Korean Acad Fam Med 2000;21 : 615~624)

---

Key words : adolescent, FACES III, family function